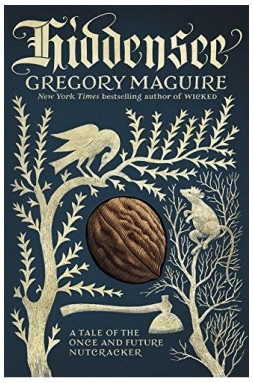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HIDDENSEE
가제 : 히덴제 섬
저자 : Gregory Maguire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7년 10월 31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소설/ 판타지

*** 뮤지컬 <위키드>의 원작자가 다시 쓴 고전의 부활 – <호두까기 인형>의 새로운 이야기**
*** "마법과 신비로움, 신기한 일들이 가득하다. 연말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 「피플(People)」**
*** "작가 특유의 어두운 톤이 다시 쓴 이 새로운 동화에서 마법을 발휘한다. 희망과 구원에 관한 힘 있는 이야기는 팬들에게 분명 기쁨을 안겨줄 것." – 「북리스트」**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극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호두까기 인형>은 E.T.A 호프만이 처음 원작 소설을 발표한 1812년 이후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화, 애니메이션으로도 재탄생되며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크리스마스 날 밤에 벌어지는 신비한 이야기는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동화만이 줄 수 있는 환상적이고 매혹적인 세상을 펼쳐 보이며 상상력을 자극한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부가 어떤 선물을 가져올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마리는 못생긴 호두까기 인형을 받으면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못된 생쥐 왕과 의리 있고 용감한 인형들의 전쟁과 신기한 인형 나라로 떠난 마리의 여행으로 이어지는데, 뮤지컬 <위키드>와 『After Alice』 다시 쓴 고전 혹은 고전의 '뒷이야기'를 독특한 상상력으로 재해석해온 작가는 신작 소설에서 호두까기 인형의 '탄생'에 주목한다. 마리의 대부, 드로셀마이어는 어쩌다 그런 인형을 만들게 되었을까? 인형의 마법 같은 능력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인형의 이야기는 곧 드로셀마이어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늘 수수께끼처럼 베일에 싸여 있던 그가 어떤 삶을 살다 나무를 깎아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는지 그 과정을 거슬러올라갔다. 크리스마스의 마법이 시작된 출발점을 되찾아가는 이 여정은 뜻밖의 놀라움과 감동을 안겨 준다.

성도 없이 그저 '더크'라 불리던 어린 사내아이가 바이에른의 깊은 숲 속에서 '늙은 남자'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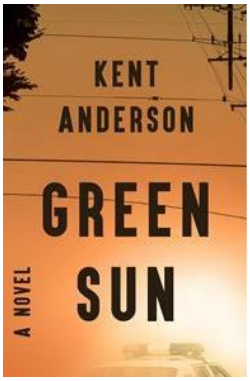
'늙은 여자'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더크는 그 두 사람이 자신의 부모는 아니라는 사실만 알뿐, 어쩌다 그들 손에 입양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늙은 남자는 손도끼로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는 나무꾼이라 더크가 어느 정도 자라자 일을 가르치기로 마음 먹는다. 하지만 더크는 도끼 다루는 솜씨가 형편없었고,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진다. 자칫 실수를 저지르면 더크가 목숨을 잃든지 나무꾼이 목숨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일들이 이어지고, 어느 날 끔찍한 사고로 크게 다친 더크는 눈 한쪽을 잃은 채 이 집을 나가기로 결심한다. 노부부가 정말로 더크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려고 한 것인지, 겁을 집어먹고 알아서 달아나도록 유도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분위기가 그를 더욱 괴롭힌다.

처음으로 다른 세상에 나선 더크는 근처 마을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지만, 행복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가까이 지내고 마음을 나눈 사람들이 불행을 맞이하거나 자꾸만 곁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자 더크는 자신이 혼자 살아야 할 운명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마치 거미처럼, 가느다란 줄 몇 개에 간신히 매달려 하루하루를 견디는 삶을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자신이 손도끼는 쓸 줄 모를지언정 그보다 작고 가벼운 칼로는 누구보다 나무를 잘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작은 칼을 쥐고 이리저리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낸 장난감이며 도구, 물건들은 금세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간다. 기나긴 비극과 불행에 쫓기고 쫓기다 이 뛰어난 기술을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더크는 시내에 장난감 가게를 차리고, 마리의 대부가 되어 겨우 안정적인 삶을 이어간다. 마리가 병들어 생사를 오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호두까기 인형을 준비하는데 사실 이 인형은 그가 젊은 시절, 나무꾼의 집에서 나와 어느 마을에서 들은 환상적인 이야기와 그가 겪은 믿기 힘든 사건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물건이었다. 신화 속에 나오는 판의 칼이 들어 있는 이 인형은 오래 전 드로셀마이어 자신에게 놀라운 모험을 열어준 작은 마법이었다.

고전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일 낭만주의와 헬레니즘, 신비주의, 그리스 신화, 삶과 사후세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에 뿌리를 둔 드로셀마이어의 인생은 불행이 꼬리처럼 따라다니던 사람이 무기력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만이 줄 수 있는 깨달음과 힘을 어떻게 거머쥘 수 있는지 보여주고, 희망이라는 가치의 소중함을 전한다. 생쥐 왕을 만나 힘든 싸움을 벌이는 호두까기 인형과 마리의 동화가 시작되기 전에 펼쳐진 색다른 상상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그레고리 맥과이어(Gregory Maguire)는 토니 상을 수상한 전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뮤지컬 <위키드>의 원작을 쓴 소설가다. 그 밖에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Confessions of an Ugly Stepsister』, 『Lost』, 『Mirror Mirror, Son of a Witch』, 『A Lion Among Men』 등을 발표했다. 미국과 해외 각지에서 예술과 문학, 문화를 가르치며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GREEN SUN
가제 : 녹색 태양
저자 : Kent Anderson
출판사: Mulholland Books
발행일: 2018년 2월 22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소설/ 하드보일드 범죄소설,

* "미국 현대사회 경찰의 현실을 꾸밈없이 그대로 전한 소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싶은 서스펜스 소설이다." - 소설가 제임스 패터슨(James Patterson)
* "범죄 소설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 세상 정체를 대변할 수 있는 작은 세상에서 인내와 굳건한 공정성을 지니고 인간의 허약함을 잘 아는 주인공은 언제, 어디서건 영웅이 된다. 미국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중 최고의 작품" - 소설가 마이클 코넬리(Michael Connelly)

전쟁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는 현장, 전쟁터에서 인류 최대의 비극적 싸움을 경험했다고 생각한 핸슨은 다시 돌아온 미국에서 또 다른, 어쩌면 그보다 더 극심한 비극과 마주한다. 오리건에서 경찰로 일하다 캘리포니아로 넘어와 예산도, 인력도 부족한 경찰서에서 미운 털 잔뜩 박힌 경찰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핸슨은 사사건건 부딪히는 경찰서 윗사람들과 동료들 속에서 우직하게 그 비극을 바로잡으려 노력한다. 주인공 핸슨은 실제로 베트남에서 특수부대원으로 일하다 극작가, 소설가로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작가와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 전쟁터에서 얻은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 글쓰기를 공부하고 문학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지만 생사가 오가는 현장에서 체득한 강렬한 기억을 문학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깨닫고 경찰 생활을 시작한 작가처럼, 주인공 핸슨은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 경찰들 틈에서 서른여덟 살의 나이로 직업도, 인생도 다시 시작한다. 당연한 가치에 누구도 공감해주지 않는 80년대 경찰 내부의 편협하고 편견 가득한 환경 속에서 고독하게, 묵묵히 신념을 지켜가는 핸슨의 이야기는 출간 전부터 제임스 엘로이, 제임스 패터슨, 마이클 코넬리 등 저명한 소설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주목 받고 있다.

핸슨보다 몇 살 어린 가버 경사는 핸슨이 지원서를 낼 때부터 그를 강력히 반대했던 인물이다. 현장 경험을 쌓은 시간보다 책상 앞에 앉아 승진 시험을 공부한 시간이 훨씬 더 길고, 경찰 내부의 정치적 관계에 정통한 그에게 특수부대원 출신이자 다른 도시에서 이미 경찰경력을 4년이나 쌓은 핸슨은 딱 봐도 다루기 힘든 부하직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경력을 높이 산 고위직 간부들의 평가 덕분에 핸슨은 1982년, 마침내 오클랜드 경찰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경력자가 새파란 신입들과 훈련이라니, 이 또한 핸슨은 물론 간부들이 반대한 일이었지만 가버 경사의 고집을 이길 수는 없었다. 매일 몇 시간씩 이어지는 수업에서, 핸슨은 어쩌면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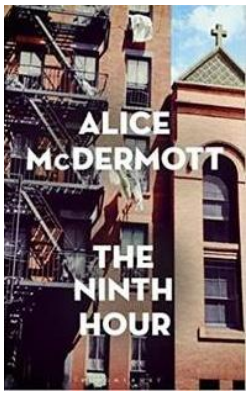
클랜드에서 경찰을 하겠다고 나선 건 큰 실수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한다. 그곳은 생각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고, 고압적이고, 무엇보다 자신을 반기는 사람이 없는 쓸쓸한 곳이었다.

비버리힐즈에서 밤 11시에 한적한 주택가를 지나던 흑인이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붙들려 합당한 이유도 없이 연행됐다면, 당연히 화를 내고 경찰에게 따질 만한 상황이 아닐까? 더욱이 경찰이 총까지 꺼내서 순찰차에 타라고 위협하는 장면이 이웃들에게 목격되었다면? 경찰은 흑인이 '자기집이 있을 리가 없는' 고급 주택가를 걸어가는 건 분명 불온한 의도가 있어서고, 신분증을 내놓으라는 경찰의 요구도 합당하며 이를 거부했으니 연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법정 싸움까지 번진 이 사건은 붙들린 흑인에게 무려 100만 달러가 넘는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끝이 났다. 경찰에게 엄청난 불명예를 안겨준 이 판결로 영 분위기가 안 좋아진 이 상황이 핸슨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총으로 위협만 했기에 망정이지, 그 정신 나간 경찰이 그를 바로 쏴 버리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핸슨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핸슨은 굳이 이런 속마음을 큰 소리로 떠벌리지 않았지만 오클랜드 경찰들 사이에서는 공감은커녕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고로 치부될 만한 이런 생각은 훈련 과정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아도 '찍힌' 경찰 생활은 점점 더 꼬여만 간다.

하지만 핸슨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반기지 않아도 어차피 돈은 벌어야 하는 이상 혼자 제 할 일만 다 하리라 다짐하지만, 문제는 그 '제 할일'이라는 것이 백인 경찰들의 가치와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이었다. 조선소와 각종 공장이 활발히 돌아가던 시절, 남부에서 일자리를 찾아 대거 유입된 흑인들이 불경기로 일할 곳이 사라진 후 어쩔 수 없이 남아 가난한 삶을 이어가던 오클랜드에서, 백인 경찰들은 백인들을 그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 임무라고 여겼지만 핸슨의 생각은 달랐다. 노골적이고 비논리적인 백인들의 차별로부터 흑인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는 확신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고해졌다. 핸슨 자신과 흑인들을 향한 짙은 편견과 증오 속에서 그는 열한 살짜리 꼬마 위지와 만나 친구가 되고, 담당 순찰 구역에서 만난 흑인 여성 리비아와 사랑을 키워가며 당당히 맞선다. 그러나 오클랜드의 마약 왕으로 불리는 펠릭스 맥스웰과 만나면서 험난한 핸슨의 일상은 더욱 꼬여만 간다. 미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왜곡된 시선과 불신, 차별의 엄청난 영향을 흑인을 적이 아닌 그냥 사람으로 보는 백인 경찰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켄트 앤더슨(Kent Anderson)은 베트남에서 미군 특수 부대원으로 근무한 후 경찰로 일했다. 몬타나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공부한 후 각본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 『Sympathy for the Devil』와 뉴욕타임스에서 '주목 할 만한 책(Notable Book)'으로 선정한 『Night Dogs』를 발표하며 소설가로 큰 주목을 받았다. 특이한 경력으로 미국에서 군인으로서의 공헌을 인정 받아 동성훈장(Bronze Stars)을 두 차례 받고 글쓰기로 연방예술기금(NEA)도 두 번 수여 받은 사람은 유일무이한 인물이 되었다.



제목 : THE NINTH HOUR
가제 : 아홉 시
저자 : Alice McDermott
출판사: Farrar, Straus and Giroux
발행일: 2017년 9월 19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소설/ 역사 소설, 가족 소설

* 베스트셀러 『The Girl with the Dragon Tattoo』 등 다양한 소설을 영화로 제작해온 Scott Rudin Productions와 영화 계약 체결
* 「뉴욕타임스」 10월 '에디터스 초이스', 2017년도 커커스 상 결선 후보, 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2017년 가을 문학소설 톱 10, 인디펜던트 선정 가을에 읽을 만한 도서
* "작가는 자신의 영역을 더욱 넓고 깊게 확장시켜 더 많은 어둠과 영적인 요소를 담아냈다. 생생하고 매혹적인 이 소설은 놀랍도록 많은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 「뉴욕타임스 북 리뷰」

"내 시간을 조금만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나 큰 잘못이었나?" 서른두 살,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짐은 차가운 2월의 오후에 가스 스토브의 밸브를 활짝 열었다. 지역 철도청에 근무하는 그는 퇴근하고 밤 늦게까지 뒹굴뒹굴 쉬고, 간식도 먹고, 책도 보고, 아내와 꼭 붙어서 보내는 시간들이 좋았다. 그러다 보면 아침에 눈 뜨기가 쉽지 않았고 일어나야 할 시간인 건 알고 있지만 그냥 눈을 감아버리곤 했다. 짐은 텅 빈 집 안에서 가스가 새어나갈 곳이 없게 창틀을 꼼꼼히 막으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이 그런 아이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지각할 걸 뻔히 알면서도 '안 갈래' 하고 마음 먹고 눈꺼풀을 닫으면 다시 잠들 수 있는 성격. 하지만 그래 봐야 길게는 두 시간, 보통 한 시간 내외로 늦을 뿐 하루를 통째로 결석하거나 무단 결근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회사는 지시 불이행, 성실성 결여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대가며 그를 쫓아냈다. 그리고 아내 애니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다고, 흐느끼며 이야기한 것이다. 왜 그제야 임신 사실을 알리는지도 짐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몇 주 후, 회사도 아내도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나의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 가스 밸브를 여는 것이었다. 애니에게는 일주일 치 장을 봐오라고 이야기하고, 집을 나서자마자 생을 마감할 준비를 시작했다. 2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근근이 생계를 버텨왔던 브루클린의 허름하고 작은 아파트에서 짐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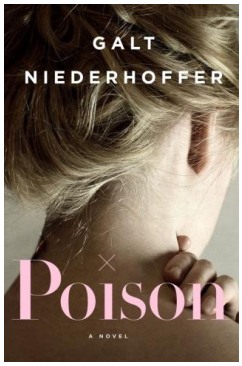
그 시각, 여섯 시간 넘게 거리에서 자선 모금을 요청하고 다니다 수녀원으로 돌아가던 '아픈 사람들을 위한 수녀회'의 노수녀, 세이버리가 근처를 지나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한다. 대부분 병들거나 나이 든 사람들이긴 하지만, 세이버리 수녀는 낯선 사람의 생활 공간에 아무 두려움 없이 들어서서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일에 도가 튼 사람이었고, 그것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은 아기와 가족 하나 없는 낯선 나라 낯선 도시에 남은 애니와 수녀회의 첫 만남이었다.

애니에게 일단 지낼 곳과 생계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감한 세이버리 수녀는 수녀원 세탁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었다. 애니는 짐의 자살이 안겨준 충격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일단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수녀원의 호의를 받아들였다. 무뚝뚝하고 말수도 적지만 여린 마음을 가진 일루미나타 수녀와 젊고 수다스러워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는 진 수녀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도움 덕분에 애니는 수녀원 생활에 적응해가고, 그곳에서 딸아이를 낳는다. 세이버리 수녀의 잊지 못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 이름을 본 따 샐리로 이름 지어진 애니의 딸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탈수기와 뽀얀 연기를 내뿜는 다리미가 가득한 세탁실을 세상 어느 곳보다 따뜻한 놀이 공간으로 여길 줄 아는, 귀엽고 발랄한 소녀로 성장한다. 수녀들은 애니가 샐리를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도록 가난한 수녀원 살림에도 필요한 육아용품이며 애니의 장난감, 책들을 어떻게든 구해주기 위해 백방으로 나선다. 좁고 낡았지만 먼지 하나 없이 늘 깨끗하게 정돈된 수녀원에서 진심 어린 정과 사랑을 선사하는 수녀들에게 사랑 받으며 자란 샐리가 수녀를 꿈꾸게 된 건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른다.

열여덟이 된 샐리는 수녀가 되기 위해 본격적인 정식 훈련 과정을 밟기 시작하고, 수련 과정의 일부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마침내 더 먼 세상에 첫 발을 디딘다. 늘 곁을 지켜주던 진 수녀와 친구 같은 루시 수녀와 함께 뉴욕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아 나선 샐리의 이 여행은, 예기치 못한 충격을 안겨준다. 수녀가 되려고 시작한 여행은 결국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신앙심을 사그라지게 만든 시초가 되고, 샐리는 전혀 다른 인생길로 나아간다. 수녀원의 보살핌과 애정에도 남편의 자살 이후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지 못한 애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다 더 큰 나락으로 추락하고, 거듭되는 절망과 비극적인 인생에 절어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야기는 애니와 샐리, 그리고 샐리에게서 태어난 아이까지 3대를 조명하며 20세기 초 미국의 모습과 희생, 종교, 연민, 상실의 의미를 위트와 함께 전한다. 작가는 애니와 샐리가 각기 다른 과정과 이유로 맞닥뜨린 낯선 세상의 모습과 수녀들의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노력은 희생과 용서가 가져오는 힘과 대가를 깊이 있는 통찰로 그려낸다.

<저자 소개>

앨리스 맥더못(Alice McDermott)은 1988년 내셔널 북 어워드 우승작인 『Charming Billy』와 퓰리처 상 결선에 오른 『That Night』, 『At Weddings and Wakes』, 『After This』 등을 쓴 소설가다. 그 밖에도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뉴요커」, 「하퍼스 매거진」 등에 단편과 에세이를 기고해 왔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인류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목 : POISON
가제 : 독살
저자 : Galt Niederhoffer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7년 11월 21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소설/ 심리스릴러

* **"다른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남편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믿는 아내의 결혼 생활을 통찰력 있게 해부한 매혹적인 소설. 과연 남편이 저지른 일일까, 그렇지 않을까에 독자는 몰입하게 되고, 페이지마다 펼쳐지는 치열한 신경전은 너무나 생생해서 이 소설이 자서전이 아니라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된다." - 「북리스트」**
* **"첫 페이지부터 불길함이 감지되지만 심리적, 물리적인 불행은 서서히 타올라 결말까지 멋진 서스펜스가 이어진다" - 「커커스 리뷰」**

시끌시끌한 도시 한복판에서 적당히 떨어진 시애틀의 주택가, 원하는 구조를 살려서 직접 의뢰해서 지은 2층 집과 밤낮 언제든 운동도 하고 뛰어 놀 수 있는 널찍한 마당, 착한 두 아이와 집안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두 살배기 막내, 그리고 집 안 곳곳을 돌아다니는 고양이까지, 잡지에나 나올 법한 이런 생활이 캐스와 라이언이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이었다. 멀지 않은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캐스는 첫 번째 남편이 호지킨 림프종을 앓다가 7년 전 앨리스와 피트, 두 아이와 자신을 남기고 떠난 후 라이언과 재혼을 했다. 병마와 싸우다 간 남편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살아갈 날을 걱정하던 그 시절에는 이런 완벽한 가족을 꾸리고 그림 같은 집에서 살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제 결혼 3년째에 접어든 두 사람 사이에서 막내 샘까지 태어나면서 한층 더 단단하게 결속된 가족으로 새 출발하자는 의미로 이사온 새 집은 다섯 명의 식구들에겐 천국이나 다름 없었다. 건축가인 라이언이 부쩍 일이 많아 저녁 식사를 함께 못하는 것만 제외하면, 부족함이라곤 찾을 수 없는 이 가족에게 불행은 끼어들 틈조차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당사자들도 미처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커다란 균열로 이어질 미세한 떨림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사실 캐스와 라이언 사이에는 둘만이 공유하는 특별한 비밀 혹은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했다. 한 집에 사는 아이들도 절대 알아차릴 수 없는 방식으로, 라이언은 사디스트적인 욕구를 드러내곤 했다. 강단에 서는 캐스가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목을 조르더라도 흔적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게끔 주의하면서 그는 폭력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매번 그 '의식'이 끝날 때마다 캐스는 찬물로 얼굴을 적시며 머릿속을 채우려는 나쁜 생각을 떨쳐냈다. 억지로 참는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내로서 충분히 해야 할 역할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꿈 같은 가족의 모습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혼자 조용히 참기만 하면 그럴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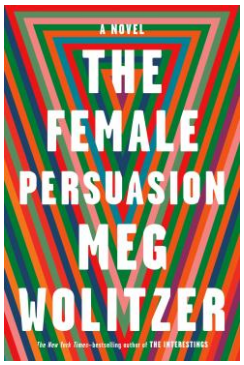
캐스가 다루는 수업 주제로 여성을 극히 혐오하는 검사들이 즐겨 활용하는 계획적인 수법에 관

한 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우연찮게도 라이언과 캐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때와 일치했다. 여성 목격자의 진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그런 검사들이 악용하는 교묘한 방식을 분석하던 시기였기 때문일까, 캐스는 어느 순간 라이언이 듬직하고 자상한 남편이자 애들 아빠의 모습과 달리 등 뒤에서 자신을 철저히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조금씩 커져가던 의심은 급기야 라이언이 아주 천천히, 아무도 눈치챌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흔적이 남지 않도록 목을 조르고,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하게 되는 무서운 말로 폭력을 휘두르고는 나중에 실수였다고 둘러대고, 위협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일들이 이어지자 의혹은 확신으로 바뀌고 불길한 감정은 독버섯처럼 캐스의 머릿속을 잠식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욕실 배수구에서 식구 중 누구의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색깔의 머리카락이 발견되면서 사태는 한층 악화된다. 평소 끝내주는 요리 솜씨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라이언이 직접 구입한 식재료들은 더욱 섬뜩했다. 하나같이 비소가 다량 함유된 음식들을 의도적으로 자신에게만 주는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캐스는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착각하는 건 어느 쪽일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라이언의 섹시한 외모에 마음을 빼앗긴 캐스가 그저 질투에 눈이 멀어 도가 지나친 상상을 펼치는 것일까? 세 아이들에게 한 없이 자상하고 무한한 애정을 쏟아내는 라이언이, 그 뒤에 냉혹한 살인마의 탈을 꽁꽁 감추고 조금씩 아내를 독살하려는 계획을 실행 중인 걸까? 운 좋게 구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한 샘의 유모, 정말 친구로서 걱정해주는 사람인지 애매한 이웃, 캐스를 과대망상 환자로 몰고 가려는 의사와 경찰, 변호사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캐스는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로 결심한다. 샘의 양육권을 빼앗기지 않고 아이들을 이 악마 같은 자의 손아귀에서 안전하게 지키려는 캐스의 고투는 과연 사실에 근거한 용기일까, 이성을 잃은 여자의 발악일까? 수없이 뒤집히는 단서들 속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의혹이 기득한 캐스의 힘겨운 싸움은 예상 밖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냄새도, 색깔도 없이 조금씩 퍼져나가는 독처럼 스멀스멀 퍼져나가는 불행이 만들어낸 한 가족의 거대한 균열을 긴장감 넘치게 그린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골트 니더호퍼(Galt Niederhoffer)는 『The Romantics』, 『Love and Happiness』 등을 쓴 소설가이자 프로듀서로, 30편이 넘는 인디 영화를 제작했다. 그 중 12편으로 선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 각본상, 감독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뉴스레터 업데이트: 미디어 리뷰, 인터넷상 화제**



제목 : THE FEMALE PERSUASION
가제 : 여자의 설득
저자 : Meg Wolitzer
출판사: Riverhead
발행일: 2018년 4월 3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소설/ 현대소설, 여성소설

*** 미국에서 전자책, 종이책 포함 50만 부가량 판매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Interestings』 작가의 신작, 초판 20만 부 인쇄 예정**
*** 사랑과 환상이 피어나고 서서히 사라지는 과정, 한 여성의 삶을 뒤흔드는 강렬한 관계와 영향력에 관한 다층적인 이야기**

개개인의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누군가와의 관계가 한 사람의 삶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2013년에 발표된 아홉 번째 소설 『The Interestings(국내 번역서 제목: 인터레스팅 클럽)』에서 청소년 시절 예술 캠프에 만난 멤버들이 중년이 되기까지 삶을 차분히 조명하며 큰 화제를 모았던 저자가 이번에는 대학에 갓 입학해 세상을 잘 모르는 풋풋한 신입생 그리어와 60대 여성 운동가 페이스 프랭크, 두 사람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여성과 권력, 특별한 관계가 한 사람의 삶에 발휘하는 커다란 영향력과 그로 인한 변화를 통해 사랑과 환상이 무너지는 가슴 아픈 과정을 보여준다.

코네티컷 남부에 위치한 별로 유명하지 않은 대학 라일랜드 칼리지에 입학한 그리어는 수줍음 많고 자기 주장을 거의 펼치지 않는 존재감 없는 여학생이었다. 평소에 누구보다 책도 많이 읽고, 머릿속에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하면서 살지만, 자신은 오히려 너무 생각이 많아서 주장을 펼치지 못한다고 한탄을 하곤 한다. 그런 그리어에게 입학한 지 7주째 된 2006년 10월의 어느 날, 페이스 프랭크가 나타난다. 기념 강의를 하러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 앞에 선 예순세 살의 여성, 수십 년간 미국 여성 운동의 중심 축으로 여겨진 우아한 이 여성의 연설에 그리어는 금세 마음을 빼앗겼다. 가만히 현실에 안주하는 대신 얼마든지 나서서 행동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살아온 페이스는 자신과 만난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저 생각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어도 예외가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 얼마 전부터 연인 사이가 된 코리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서도 그저 사랑 하나만을 위해 살 수는 없다고, 꿈도 야망도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던 그리어에게 페이스의 연설은 그 길을 보여주겠다고 손을 내민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페이스 역시 평범한 갈색 머리카락 한 쪽을 눈에 확 튀는 새파란 색으로 염색한 그리

어에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또래 대학생들 대부분이 온갖 색깔로 머리를 물들이는 마당에 단순히 튀는 색 머리카락 때문에 페이스가 그리어에게 주목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 곳곳을 돌며 수없이 많은 여성들과 만나 그들의 삶이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어온 타고난 리더답게, 페이스의 눈에 그리어는 어딘지 모르게 안쓰러운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세상을 불편해하는 젊은이, 불안하고 방황하는 젊은 여성, 자신이 인도해줘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어는 페이스가 자신에게 흥미를 느낀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 두 눈을 트이게 한 페이스와의 만남이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아주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이루 말할 수 없는 결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건 페이스도, 그리어도 전혀 예상치 못했을 뿐이다.

페이스는 그리어의 삶으로 성큼 들어와 훨씬 더 높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게끔 인도한다. 그러나 페이스가 이끄는 삶은 그리어가 평생을 함께 하고픈 코리와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대학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와의 우정을 위태롭게 만든다. 페이스를 롤모델이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우상으로 여겼던 그리어는 개인적인 삶과 대의를 위한 삶의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페이스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자신의 오롯한 삶은 어느 부분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작가는 세상에 성인으로 갓 첫 발을 디딘 그리어라는 젊은 여성을 통해 자아와 충성심, 여성들 사이에 형성되는 복잡미묘한 관계와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꿈꾸고 추구하는 야망의 본질을 날카롭고 통찰력 있게 그린다. 이전 작품들에서 인정 받은 진지한 주제와 유머, 감정의 진솔한 묘사가 균형을 이루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누구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뜨거운 열망이 있다. 때로는 스스로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누가 대신 발견해서 그 열정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하는 심리를 섬세하게 그리며, 페미니즘의 의미를 함부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객관적이고 문화적인 시선으로 다룬다. 두 여성의 이야기지만 그리어의 삶에 또 하나의 큰 축이 되는 코리도 부차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는 강력한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이야기에 흥미를 더한다.

<저자 소개>

멕 월리처(Meg Wolitzer)는 뉴욕에서 태어나 스미스 칼리지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하고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했다. 아이오와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등에서 문예창작과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해 왔다.「뉴욕타임스」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하드커버 11만부, 페이퍼백 15만부, 전자책 22만 부 이상이 판매된 최신작『The Interestings』를 비롯해『The Wife』,『The Position』,『The Ten-Year Nap』,『The Uncoupling』 등 남성과 여성, 가족과 우정 등 미묘한 인간관계와 감정, 특히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작품들을 발표해 왔다.

The excitement is growing every day for THE FEMALE PERSUASION by Meg Wolitzer (Riverhead; On-Sale: 4/3/18; ISBN: 9781594488405) with love and enthusiasm for this book exclaiming from every corner of the internet and bookstore community. Below are some of the latest highlights:

RAVE EARLY REVIEW

- A glowing STARRED review from PUBLISHERS WEEKLY just declared the book an "ambitious and satisfying novel" and concludes that: "As in her previous novels, Wolitzer writes with an easy, engrossing style, and her eye for detail seamlessly connects all the dots in the book's four major story lines. This insightful and resonant novel explores what it is to both embrace womanhood and suffer because of it."

ONE OF THE MOST ANTICIPATED BOOKS OF 2018

- The book is already starting to appear on all of the major 2018 Previews, including HARPER'S BAZAAR, which names it one of the "New Books to Add to Your Reading List in 2018," observing: "As she did in 2013's The Interestings, Wolitzer highlights her ability to find the yearning that lives in all of us."
- POPSUGAR names it as one of the "Most Anticipated Books Out in 2018" warning: "Fans of The Interestings, get ready! This Spring, Meg Wolitzer brings us The Female Persuasion, about a college freshman who meets a feminist icon and becomes her protégé. A novel about female power and ambition."
- TIME magazine and ENTERTAINMENT WEEKLY both have plans to feature the book as one of the most anticipated novels of 2018 in their special preview issues hitting stands later this month.

NATIONAL TOUR

- Meg is slated to hit up over 18 different cities across the country this April and May. You can see the confirmed tour line-up below.

MAJOR MEDIA LINING UP

- Early confirmations are already coming in for feature and review coverage from the NEW YORK TIMES, NPR and the ASSOCIATED PRESS, among others, with so much more expected in the coming weeks.

We will absolutely keep you posted as more develops, but in the meantime, you can see the confirmed media/event rundown below.

Pre-Pub Media

Publishers Weekly – Top Ten Literary Fiction Feature – TK
Entertainment Weekly – feature – December preview issue
Minneapolis Star-Tribune – NYE Column of Books –TK
Bitch Media – Must-Read Books for Spring – TK
TIME – End of Year / 2018 Preview – December TK
PopSugar – 10 of the Most Anticipated Books Out in 2018 – 12/1

Harper's Bazaar – 10 New Books to Add to Your Reading List in 2018 – 11/30

BookRiot – 101 Books Coming Out in 2018 That You Should Mark Down Now – 11/27

Bookish Daily – Writers Recommend – 11/17

Slate – recommended on DoubleX podcast – 11/16

Library Journal – Pre-Pub Alert (Barbara's Pick) – 11/15 issue

Elite Daily – 2018 Book Releases That'll Make Reading More Your New Year's Resolution – 11/9

The Guardian – What Older, Wiser Women Can Teach Us – 11/4

Food 52 - Eating the Cosmos: Your November Horoscope – 11/1

My Cup & Chaucer – 10 Books Already On My 2018 TBR Pile – 9/20

Jewish Book Council – Book Cover of the Week – 9/15

Lenny Letter – jacket reveal – 8/15

BookPage – 2018 Preview – 8/16

National Radio

NPR / All Things Considered – interview – April 3

National Print/On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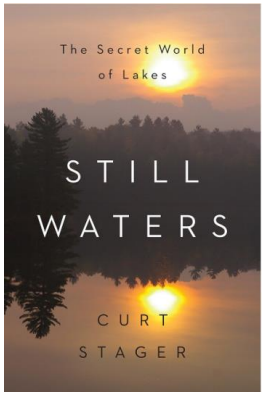
New York Times – profile – TK

Associated Press – review assigned – TK

Publisher's Weekly – profile – February TK

Refinery29 – profile – April TK

NON-FICTION



제목 : STILL WATERS
가제 : 잔잔한 물 속에서
(부제 : 호수 속 비밀 세상)
저자 : Curt Stager
출판사: W. W. Norton & Company
발행일: 2018년 5월 29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자연(생태학), 환경

* "지구상에 존재하는 호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가장 신선한 물을 시원하게 쭉 들이키는 기분을 선사할 것이다." - 『Radio Free Vermont』의 저자 빌 맥비벤
* "호수 내부의 매혹적인 생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생물학적, 문화적 환경은 살아 숨쉬는 물과 연계시키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을 증명해 보인 책이다." - 『The Songs of Trees』의 저자 데이빗 조지 해스켈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신의 눈물방울', '지구의 눈'이라고 칭한 미국 메사추세츠의 월든 호수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특별한 관광지가 되었다. 그러나 소로의 업적은 아름다운 장소를 세상에 알린 것이 아니라 호수를 움직이지 않는 대상이나 인간을 위한 자원,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아닌 3차원의 또 다른 세상으로 보고 생태계에 대해,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고찰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자연을 연구하는 전문가와 자연을 사랑하는 일반인들이 모두 공감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생명의 신비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생명과 자연의 사슬을 다각도로 이야기한 소로의 책을 현대 사회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 책을 완성했다고 전한다. 그동안 엄청난 기술의 발전으로 호수는 물론 자연 전반에 관한 교과서며 지침서, 전문적인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특정 분야의 학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내용으로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고, 보다 넓은 독자를 포괄할 수 있는 책들은 호수를 친근하게 다루기는 하지만 호수보다 사람에게 더 집중하여 깊이가 부족한 한계가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새롭게 밝혀진 과학적인 정보에 저자의 미학적 관점과 철학적 통찰을 함께 담아 호수와 자연을 설명한 책, 저자는 소로의 저서처럼 바로 그런 책을 쓰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야기한다.

세상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그 변화를 주도하는 인간의 활동은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된 자연, 그리고 호수의 생태계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와 핵폭발로 인한 방사능 낙진은 소로가 살았던 100여 년에는 상상치도 못했을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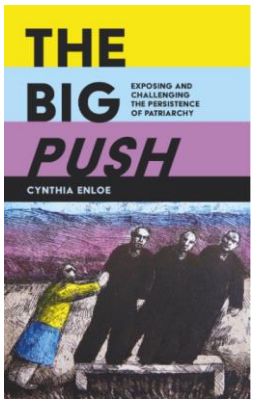
변화지만 인간과 호수 생태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고, 이는 호수 바닥에서 채취한 표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호수 생태학자인 저자는 미국 메사추세츠와 애디론댁 산맥부터 시베리아, 중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 자리한 호수를 소개하며 우리를 거울처럼 잔잔하고 매끄러운 표면 아래에 숨겨진 세상으로 안내한다. 가장자리에 서서 가만히 내려다보면 사람과 자연을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이자 역사와 문화를 비추는 창, 그리고 인간과 모든 생명체 사이에 연결된 고리를 확인시켜주는 곳이 바로 호수라는 사실과 더불어, 저자는 이 낯설고도 매력적인 자연의 한 부분에 담긴 신기한 사실을 하나하나 풀어 놓는다. 또한 37장의 사진과 함께 호수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찬미하고 수생 생물과 고대부터 보존된 호수 바닥의 침전물 등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를 설명하면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호수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이유를 밝힌다.

<목차>

머리말
1. 월든
2. 생명의 물, 죽음의 물
3. 거울로서의 호수
4. 그레이트 리프트
5. 갈릴리
6. 스카이 워터
7. 유서 깊은 호수들

<저자 소개>

커트 스태거(Curt Stager)는 뉴욕 폴 스미스 칼리지의 자연과학 교수로 2015년에는 뉴욕 주가 선정한 '과학분야 카네기-CASE 올해의 교수(Carnegie-Case Science Professor)'에 이름을 올렸다. 「사이언스」, 「내셔널 지오그래픽」, 「뉴욕타임스」 등에 글을 기고해 왔으며 라디오 프로그램 '네추럴 셀렉션'에 공동 진행자로도 활동 중이다.



제목: THE BIG PUSH

가제: 밀어라, 더 세게

(부제: 끈질긴 가부장적 사고를 끄집어내고 도전하라)

저자: Cynthia Enloe

출판사: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발행일: 2017년 10월 26일

분량: 208 페이지

장르: 사회과학(여성학)

* **"저자 특유의 쉽고 흡입력 있는 스타일로 현 시대와 역사상 중요한 사건들을 조명한 책" - 『Men, Militarism and UN Peacekeeping』의 저자 산드라 휘트워스**
* **"페미니스트의 시각으로 일상생활에 형성된 권력과 억압의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가부장제'의 실태를 고발한다. 명료함과 위트를 갖춘, 매력적인 책이다!" - 브리스톨 대학교 정치이론 교수, 『Men in Political Theory』의 저자 테렐 카버**

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면서 남녀 평등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미국에서는 유명인을 포함한 수많은 여성들이 과거에 겪은 성추행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며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현실에 변화를 일으키고, 경찰서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서 곧바로 중요한 단서를 채취할 수 있는 키트가 마련되고, 볼리비아와 르완다에서는 여성이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 대선에서 여성 후보가 큰 인기를 얻은 것도 그러한 생각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로 뿌리 깊은 가부장적 사고도 정말 약화되었을까? 79세의 나이에도 학자로, 페미니스트로 활발히 활동 중인 저자는 안타깝지만 상황은 정반대라고 이 책에서 단언한다. 저자는 페미니즘이 급부상한 만큼 가부장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의 전략도 과거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교묘해졌다고 이야기하며, 문화와 제도, 경제 시스템 속에 너무나 확고하고 탄탄하게 변형된 형태로 굳건히 남아 있는 실태를 실제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

거대 언론사마다 여직원의 성추행이 당연한 일처럼 자리를 잡아 묵인되고 용인되는 현실, UN에 버젓이 남아 있는 남성 위주의 조직 체계와 업무 방식, 시리아 여성들이 국제 평화협상에서 배제되고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 소녀들이 강압적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곳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은 가부장적 사고가 약화되기는커녕 한층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변형되어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특히 저자는 미국 대선에서 노골적으로 인종 차별과 성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를 지지하는 우익 보수 세력의 가부장적인 판단 기준에 전 세계적의 우려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특정 인사의 시각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당선 이전에도 미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 가부장적인 성차별은 존재했고 그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뒤에도 그 상황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므로 문제를 전체적

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저자는 광범위하게 퍼진 가부장적 태도와 행동을 뿌리뽑기 위해 어떤 전략과 기술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속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여성들이 가부장적 편견을 없애려고 시도하는 노력이 오히려 비합리적인 차별을 공고히 하고 가부장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무작정 뛰어들기 전에 철저한 자기반성의 단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저자 개인의 삶과 전 세계 다양한 여성들이 경험한 일들을 제시하면서, 여성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전략적인 접근법으로 정치, 문화, 경제에 남은 가부장적 편견을 효과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고민한다.

<목차>

머리말: 문제가 트럼프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1. 분홍색 털모자 vs. 가부장적 사고
2. 평화 회담의 가부장적 태도에 반대한 시리아 여성들
3. 카르멩 미란다의 귀환
4. 타이콘데로가, 세티스버그, 히로시마의 관광업과 공모 관계
5. 갈리폴리, 솜, 헤이그에서 벌어진 가부장적 망각
6. 치맛자락
7. 첩첩산중에 놓인 페미니즘적 의식
8. 카페테리아의 여성들, UN의 원더우먼, 기타 저항의 노력
결론: 업데이트된 가부장제, 결코 천하무적은 아니다

<저자 소개>

신시아 엔로이(Cynthia Enloe)는 클라크 대학교에서 군국주의와 초국가적 페미니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Maneuvers: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Militarizing Women's Lives』, 『The Curious Feminist: Searching for Women in a New Age of Empire』 등 열다섯 권이 넘는 저서를 쓰고 BBC, 알 자지라, NPR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미국 평화·정의 연구협회로부터 평화 연구분야 공로상을 수상했다.

제목 : THE BEAUTY DIET
가제 : 뷰티 다이어트
(부제 : 내면에서 찾는 다섯 가지 아름다움의 비결)
저자 : David Wolfe
출판사: HarperOne
발행일: 2018년 4월 3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건강, 다이어트

*** 인체의 건강한 기능을 강화하여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찾는 법, 영양 전문가가 소개하는 건강한 식생활과 아름다움의 관계**

예쁘고 잘생겨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까?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은 인간 본연의 특징이며 꼭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전혀 몰랐거나 알아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마법처럼 해결되는 일들도 늘어나고, 미용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원하는 외모를 성형으로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방법도 활용되지만, 미국의 경우 매년 16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미용과 화장품 산업에 콸콸 유입되고 있다. 과연 쏟아부어진 돈만큼, 아주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예뻐지는 방법이 등장했을까?

저자는 단시간에 큰 효과를 보려는 소비자들의 조바심과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의 부도덕한 업체들의 욕심이 결합되어, 여성들이 예뻐지려고 바르고 섭취하는 미용 제품을 통해 매년 2 킬로그램이 넘는 독성 물질이 인체에 흡수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천연 성분'이라고 자랑스럽게 문구를 내건 제품들에도 위험한 성분들이 숨어 있고, 총 8만 2천 가지로 추정되는 전체 화학물질 중 무려 10 퍼센트가 아름다워지려고 구입하는 미용 제품과 화장품 제품에 들어 있다. 발암물질, 생식 독성물질, 호르몬 교란물질, 농약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 미국 여성들을 기준으로, 하루에 총 12가지 개인위생 용품과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통계대로라면 매일 168가지의 화학물질을 사용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이 대상에는 성장이 끝나지 않은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고, 오히려 사용하는 미용 용품의 가짓수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 상황이다. 저자는 이처럼 단단히 잘못된 미용의 개념을 처음부터 바로잡을 수 있는 정보들을 이 책에 담았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건강을 망가뜨리고, 노화를 촉진하는 부적절한 방법 대신, 대부분의 현대인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를 개선하여 아름다움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예뻐지는 음식을 먹는 것, 즉 피부와 머리카락에 윤기가 흐르도록 해줄 슈퍼푸드와 슈퍼 허브를 잘 챙겨 먹는 것, 이미 몸 속에 쌓여 있는 독성 물질을 내보내고 더 이상 쌓이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하는 것, 세포가 건강하게 기능하면 아름다움은 알아서 따라온다는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세포에 필요한 영양을 듬뿍 공급하는 것, 인체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의 기능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아름다움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 다섯 가지가 이 책이 강조하는 아름다움의 핵심 열쇠이다. 저자는 오랜 세월 검증된 이 다섯 가지 미의 기본 토대가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영양과 신체활동, 수면, 인체 기능의 화학적인 반응 과정 등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더불어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레시피와 활성 탄소, 프로바이오틱스 등 시중에 판매되는 미용 관련 제품 중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과 그 이유를 상세히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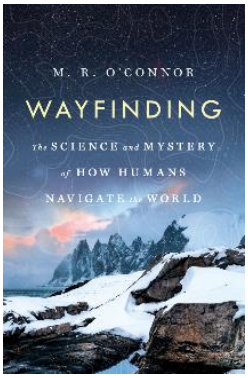
흑백 일러스트레이션과 30장 이상의 컬러 사진과 함께 아름다운 외모는 물론 몸 전체의 활력과 건강을 한꺼번에 강화할 수 있는 팁을 얻을 수 있는 건강서다.

<목차>

머리말: 아름다움을 좌우하는 다섯 가지 요소
1장. 아름다워지는 식생활
 슈퍼푸드와 슈퍼허브: 아름다움의 기본 토대
2장. 독소를 없애라
3장.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라
4장. 호르몬 균형을 찾아라
5장. 스트레스를 극복하라
아름다워지는 3일간의 해독
아름다워지는 일주일 집중 과제
아름다워지는 레시피

<저자 소개>

데이빗 울프(David Wolfe)는 영양과 천연 미용법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전문가로 20년 이상 인체 내부의 기능을 개선하여 아름답게 사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 온라인 건강 매거진 TheBestDayEver.com를 공동 창립하고 슈퍼푸드 업체 NUTRiBULLET™ Superfood Nutrition Extractor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 『SuperFoods』, 『Eating For Beauty』 등 여러 저서를 썼다.



제목 : WAYFIDNING

가제 : 길 찾기

(부제 : 인간의 길 찾기 능력에 얽힌 미스터리와 과학)

저자 : M. R. O'Connor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8년 6월 19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과학

*** GPS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도 발휘되던 인간의 길 찾기 능력, 역사적, 생물학적, 인류학적으로 분석한 이 특별한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

기술의 발달은 여러모로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바꿔놓았지만 영리한 기술의 도움이 없었던 시절에 자연스레 드러난 인간의 다양한 기능을 사라지거나 약화시킨 뜻밖의 결과도 가져왔다. 휴대전화가 나오기 전에는 집 전화번호는 물론 자주 통화하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전화번호 여러 개를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님, 배우자, 집 전화번호는 물론 자신의 전화번호도 금세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길을 찾아가는 능력도 마찬가지다. 인터넷도 GPS도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여행을 했고,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신 대륙을 찾기 위해 탐험가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란 확신도 없이 망망대해로 나아갔다.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지 않는 외진 장소에서 검색도 못하고 지도도 없어서 난감했던 경험이 있다면, 여행지에서 꼼짝없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직감을 믿고 주변을 탐색하며 이리저리 길을 찾다 마침내 가야 할 방향을 찾은 적이 있다면 우리 몸 속에 '내장된' 길 찾기 능력을 체감했을 것이다.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젊은 시절 실제로 경험한 그런 상황을 계기로, 신경학과 인류학적 관점에서 인간이 이 길 찾기 능력을 발휘하고 계속 발전시켜나간 것이 인지적 진화는 물론 인간 사회 전체의 문화적 대변혁을 가져온 놀라운 과정을 발견하고 이 책에서 상세히 소개한다.

저자는 하늘을 나는 철새들, 그 밖에 여러 동물들이 원하는 곳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동물의 길 찾기 능력을 연구하기 시작한 생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들, 전 세계 인류의 조상들이 지도나 특별한 장비 없이 아주 급박하고 힘든 상황에서 길을 찾는 모험을 불사했던 사례, 그리고 문화적으로 확립된 정교한 길 찾기 방식 등을 설명하고 북극과 호주의 오지 지역, 남태평양의 섬들을 직접 방문하여 전통적인 길 찾기 기술이 아직도 남아 있는 곳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함께 전한다. 이와 함께 우리가 공간적인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신경학적인 토대는 뇌의 해마이며 극심한 트라우마나 사고로 해마가 손상된 사람들과 아직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에게서 입증된 해마와 길 찾기, 기억 보존 능력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이는 과거에 비해 이동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인간 본연의 길 찾기 기술을 거의 활용하지 않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에 관한 우려로 이어지고, 최근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 실제로 우리 뇌가 가진 인지

적인 지도 제작 기능이 급격히 감소하고 해마의 기능도 축소된 사실과 연계하여 그 위험성을 경고한다. 저자는 길 찾기에 활용되는 인지 기능은 많이 훈련할수록 뇌의 회백질도 늘어나고 해마의 건강도 함께 강화된다는 점과 해마의 기능이 쇠퇴할 경우 기억력 감퇴는 물론 치매,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위험한 질환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함께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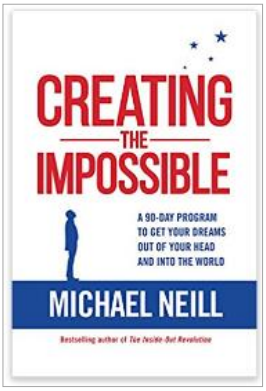
저자는 현대인들이 도시 숲에 둘러 싸여 있으면서도 때로는 자연으로 나가 한참을 걷고 싶어하고, 그럴 여유가 없으면 도시 한가운데라도 한없이 걸으며 머리를 비우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먼 옛날 인류의 조상들이 키워낸, 두 발로 걷고 주변 환경과 접촉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던 그 능력을 무의식 중에 그리워하는 행위일지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인간이 지닌 특별한 능력인 길 찾기 기술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고 그 의미를 흥미롭게 짚어본 과학서다.

<목차>

머리말: 과잉 이동성
1부. 북극
- 길이 나지 않은 유일한 곳
- 기억의 탈출
- 왜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할까
- 새, 꿀벌, 늑대, 고래
- 우리는 길을 찾으며 인간이 되었다
- 스토리텔링 컴퓨터
2부. 호주
- 슈퍼 유목민
- 수면과 지도 제작
- 뇌와 시공간
- 번개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 당신이 왼쪽이라 한다면, 나는 북쪽이라 하겠네
3부. 오세아니아
- 하버드의 경험론 (이하 생략)

<저자 소개>

M. R. 오코너(M. R. O'Connor)는 MIT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브룩클린에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슬레이트」, 「뉴요커」, 「외교정책」 지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첫 번째 저서인 『Resurrection Science』는 2015년 「라이브러리 저널」과 아마존에서 '올해 최고의 도서' 중 한 권으로 선정됐다.



제목 : CREATING THE IMPOSSIBLE
가제 : 불가능도 현실이 된다
(부제 : 머릿속 꿈을 세상 밖으로 꺼내기 위한 90일 프로그램)
저자 : Michael Neill
출판사: Hay House, Inc.
발행일: 2018년 1월 2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타고난 재능을 가진 저자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창의적인 힘을 자극하는, 매우 흥미로운 여정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페이지마다 담긴 강력하고 생각을 끌어내는 원칙들은 장애물을 이겨내고 꿈을 이루며 사는 삶으로 이끈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Dying to Be Me』의 저자 아니타 무자니
* "예술가의 방식으로 참신하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책. 큰 꿈을 갖고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 업체 Zen Marketing CEO, 샤마 사이더

길을 가다가, 영화를 보다가, 혹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머릿속에 아주 짧지만 강렬한 열망이 떠오를 때가 있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옷장 속에 고이 걸어둔 옷을 당장 다음 달에는 입고 싶다거나 평소 관심 있던 이태리어를 회화가 가능할 정도로 익히고 싶다는 다소 가벼운 생각일 수도 있고,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세계여행을 다니고 싶다거나, 수십 년은 무조건 벌어야 해결되는 빚을 단 몇 년 안에 끝내고 싶다는 큰 꿈일 수도 있다. 대부분은 어떤 계기로든 그런 생각을 떠올린 직후 머리를 저어대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혼잣말로 털어버리지만, 저자는 바로 그런 꿈, 스스로 '말이 안 된다'고 확신하는 불가능한 꿈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한다. 터무니 없고 실현 불가능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목표를 정하고 기간을 정해 적극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성과가 눈 앞에 나타난다. 나와는 동떨어진 일로 생각했던 일들이 형체를 갖추기 시작하고, 허무맹랑한 것으로 보이던 목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자는 지난 7년간 온라인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그 과정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기적 같은 결과의 비밀은 바로 뒤집어 생각할 줄 아는 능력과 창의력, 회복력이라고 이야기한다.

뒤집어 생각하기란 평소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일들을 뿌리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하고, 이 원리를 알면 하루 동안에도 들쑥날쑥 휘몰아치는 감정과 무수한 고민의 원천을 집어낼 수 있으므로 무엇을 하건 생산성이 자연스레 향상된다. 이 책의 1부에서 저자는 창의적인 사고를 깨워 기존에 알던 것도 다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을 2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목표가 무엇이든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닌 구체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생각지도 못했던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아내는 원리를 배울 수 있다.

책 2부에서는 90일간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실천 방안이 일주일 단위 계획으로 제시된다. 꼭 이루고 싶은 꿈을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생각과 마음을 전부 바꾸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 따라올 수 있는 생각 전환, 목표 달성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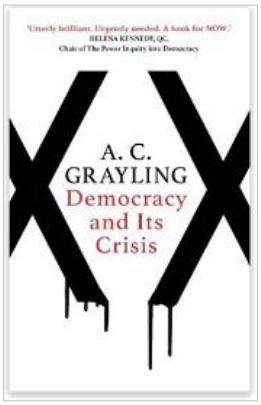
기계처럼 쳇바퀴 돌 듯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인간 본연의 창의력을 완전히 깨워서 끌려가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정한 방식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길을 직접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기계발서다.

<목차>

머리말. 여러분이 가진 불가능한 꿈은 무엇입니까?
1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법
 1장. 창의력의 원천
 2장. 가변 상수
 3장. 궁극적인 자원
 4장. 노력 없이 얻는 생산성의 비밀
 5장. 재미와 이윤이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
2부. 불가능을 가능한 일로 만들기
 - 고무와 도로의 만남
  1주차. 불가능한 목표를 선택하라 (1-7일)
  2주차. 게임을 시작해볼까! (8-14일)
  3주차. 내면의 GPS (15-21일)
  (이하 생략, 13주차까지 구성)
맺음말 / 부록

<저자 소개>

마이클 닐(Michael Neill)은 자기계발 코치이자 베스트셀러 『The Inside-Out Revolution』, 『You Can Have What You Want』, 『The Space Within』 등을 쓴 저술가다. "Why Aren't We Awesomer?"이라는 주제로 참여한 TED 강연은 전 세계적으로 조회수 20만 회를 기록했다. HayHouseRadio.com에서 주간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블로그, 팟캐스트도 운영하고 있다.



제목 : DEMOCRACY AND ITS CRISIS
가제 : 민주주의의 위기
저자 : A. C. Grayling
출판사: Oneworld Publications
발행일: 2017년 9월 7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정치

* "영국에서 '사상가'라 부를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A. C. 그레일링이다. 그의 글은 명료함과 우아함의 표본이다." - 타임(The Times)
* "『연방주의자 논집』, 『통치론』과 나란히 책장에 꽂아둘 만한 가치가 있는, 주목할 만한 책 -「커커스 리뷰」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결정한 브렉시트, 미국에서 극단적 우익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 이 두 가지 거대한 변화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철학 교수이자 영국의 대표적인 철학가로 꼽히는 저자는 민주주의에 뭔가 단단히 문제가 생겼음을 보여준 증거라고 이야기한다. 소수의 특정 당파가 훨씬 거대한 정치 조직의 전체적인 생각을 넘어서면서 브렉시트라는 결과가 빚어졌고, 효용성을 잃어버린 선거인단 투표제의 산물이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민주주의는 한 나라의 구성원이 특정한 통치 방식에 동의하는 원천이 되는 것으로만 정의할 수 없으며, 헌법적 합의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어 국민의 대표가 아닌, 국민 개개인 모든 사람의 생각이 반영되어야 비로소 올바른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고, 법으로 정해진 규칙이 강력히 시행되고,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이 흔들리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결과가 빚어졌다고 설명하면서, 저자는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마련된 제도가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힘을 더 이상 이겨내지 못하게 된 배경을 이 책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왜 중요한지 고찰하고,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를 거슬러올라가 과거에는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투표는 한 표 한 표에 똑같은 무게가 실려야 하지만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저자는 고대 민주주의와 서로 대립되는 견해를 피력했던 두 철학자 존 로크와 토마스 홉스에게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다. 또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와 영국에서 의회파와 왕당파 간에 일어난 1642년의 내란,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에서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위기와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으며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지언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등장했던 해법을 토대로 우리가 찾아야 할 해답을 찾아간다. 더불어 국민주권주의의 장점과 내재적 모순을 짚어보면서 영국의 경우 표면적인 민주주의 원칙은 국민 주권주의지만 실제 주권은 의회가 쥐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

한다. 또한 대통령, 의회, 대법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내세운 미국의 정치체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21세기 전 세계 민주주의 전반에 드리운 위기의 실체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선거 비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만 16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 선거 의무제를 도입하는 것 등 저자는 고찰의 결과로 다양한 해법을 권고하고 권위주의를 내세운 국가 지도자와 포퓰리즘의 지속적인 확대 등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검은 돈과 기업의 거대한 권력, 빅 데이터, 소셜 미디어, 망가진 정당 시스템의 문제와 해결 방안도 상세히 살펴본다.

<목차>

머리말
1부.
1. 딜레마의 역사 제 1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2. 딜레마의 역사 제 2편: 1647년 퍼트니 논쟁
3. 해법의 등장 제 1편: 로크, 홉스, 스피노자
4. 해법의 등장 제 2편: 몽테스키외, 루소
5. 해법의 제안 제 1편: 매디슨, 콘스탄트
6. 해법의 제안 제 2편: 드 토크빌, 밀
2부.
7. 대안 민주주의와 반 민주주의
8.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
9. 대의정치가 기능하려면
10. 국민, 그리고 헌법
결론 / 부록 I: 브렉시트 / 부록 II: 그 외 민주주의 실패 사례

<저자 소개>

A.C. 그레일링(A.C. Grayling)은 런던 전문대학 뉴 칼리지 오브 휴머니티(New College of the Humanities)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베스트셀러 『The Meaning of Things』, 『The Good Book』, 『The God Argument』 등 철학서, 전기, 역사서를 여러 권 썼다. 영국과 미국, 호주의 다양한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다. 철학 분야에서 남긴 업적을 인정받아 올해 대영제국훈장(CBE)을 수여했다.